# 주부신행담 다시 부처님 품으로

그림 · 이준석

## 부처님 말씀은 용기와 희망주는 삶의 청량제이자 활력소 불서 읽으며 심신피로 풀었다

나는 불교 가정에 태어난 인연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절에 다녔고 그 영향 탓인지 관세음보살 정근은 동요처럼 자연스러웠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가끔씩 되뇌이곤 하였다. 시험지를 받아들 때 콩콩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염불하였고 간혹 어머님이 아프실 때 "관세음보살님 우리 어머니를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기원하며 염불했었다.

자라서는 불교를 알고 싶어 불교학생회에도 가입하였고 상급학교 진학할 때마다 관세음보살님에게 원하는 학교에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타게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늘 노력이 부족한 탓인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한 적이 없었기에 나는 그 불합격도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돌보지 않아 그렇게 되었다고 보살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그 원망이 깊으면 관세음보살님을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고 마음 속으로 다짐도 하지만 보살님을 찾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하여 노력하지 않은 자신을 참회하고 또 관세음보살님을 불렀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되지 않아 집에서 쉬게 되었다. 그때 많은 불서들을 읽었다. 그 중에서 광덕스님의 책들은 불교를 알기 쉽게 가르쳐 주어 정말 좋았다. 〈생의 의문에서 해결까지〉 〈불광〉…이러한 책들은 읽고 또 읽어도 새로웠고 좋았다. 부처님 진리의 태양이 내 생명이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생명. 불자 앞에 어두움은 없다 던 스님의 말씀들은 나 자신에 대한 긍지와 위대함을 일깨워주는 듯 했다. 취직되지 않아 우울한 내가 얼마나 많은 용기와 희망을 받았는지 모른다. 나는 그때 살아가는데 있어서 부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며 삶을 맑고 밝게 해주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십대 중반에 결혼을 했다. 남편은 딸 많은 집의 외동 아들로 시댁은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다. 사랑 하나만 있으면 결혼생활은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다. 시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모시고 살았는데 시집생활이 쉽지 않았다. 자라온 환경과는 다른 시댁의 분위기나 가풍에 적응되지 않아 무척 괴로웠다. 그리고 아들이 귀한 집안이라 시부모님들의 남아선호사상이 깊어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는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 마음이 울적하고 외로우면 집 근처에 있는 연화사를 다녔고 관세음보살님을 더욱더 열심히 불렀다. 첫 딸을 낳고 어려운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보험회사를 다녔다. 하루종일 보험을 팔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면 나는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불서를 읽고 그날 쌓인 심신의 피로를 풀곤 했다. 부처님 말씀은 내 삶의 청량제였으며 활력소였다.

두번째 임신을 했을 때 첫째가 딸이니 두번째는 꼭 아들이면 싶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손자를 무척이나 바라셨고 어려운 가정형편에 아들 낳으려고 자꾸 출산할 수도 없었기에 이번엔 꼭 아들이었으면 싶었다. 그러나 또 딸이었다.

세월이 흘러도 어려운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시부모님과의 동거에서 야기되는 갈등도 괴로웠다. 남편은 영업직이 적성에 맞지 않는지 힘들어했고 수입은 늘 부족해 생계는 힘들었다. 나는 현실이 답답할수록 더욱더 연화사 법당을 찾아 부처님에게 많은 부탁을 하였다. 부처님 세번째 아기는 꼭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남편이 좋은 곳에 취직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집에 부자되게 해주십시오.

돈이 부족해 불전에 보시도 하지 못한채 부처님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만 하는 염치없는 불자였다. 자꾸만 무엇을 해달라는 기복신앙 밖에 갖지 못했지만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정말 마음 든든한 일이었다.

작은 딸을 업고 또 보험회사를 다녔다. 누군가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게 보험보다 쉽다고 해 전자제품도 팔러 다녔다. 세번째 임신을 하게 됐을 때 또 딸을 낳을까봐 무척 두려웠다. 아기를 업고 임신한 몸으로 무엇을 팔러 다니는 것은 무척 힘들었다. 그러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영업직을 그만두고 말았다. 수입이 대단하진 않았지만 남편의 심적은 내게 충격이었고 큰 걱정거리였다.

그러던 어느날 우리집에 우유를 배달해 주는 우유 아주머니가 오후에 우유수금을 나오시더니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다. 자기가 믿는 종교는 대순진리교라 하였고 외래종교와는 달리 교주가 우리나라 사람인 민족종교라고 하였다. 처음 들어보는 신흥종교라 거부반응을 보였더니 미륵부처님을 모시는 종교며 불교 비슷한 종교라고 하였다. 나는 미륵부처님을 모시는 종교라고 하니 미륵부처님도 부처님과 같으신 분이라 그 종교에 대한 경계심이 누그러졌다. 그 아주머니가 선천세계가 어떠하며 후천세계가 어떠하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 이것이 선천세계이고, 이 세계가 끝나고 새롭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되는 그 세계가 후천세계라고 여겨졌다. 내가 생각해도 이 세상은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았다.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 기아, 환경파괴, 도덕상실, 각종 범죄들 그리고 지도력을 상실해버린 종교들. 이젠 그 누구도 이렇게 혼탁해진 세상을 해결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미륵부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말씀하시다니, 나는 문득 이 미륵부처님에 관해 알고 싶어졌다. 어쩌면 이 종교에서는 내가 불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아주머니에게 교리책을 얻어 읽어보았다. 저자가 유명대학 명예교수라 더 신뢰감이 갔다. 이 책을 읽고 보니 교주가 진짜 미륵부처님일지도 모른다고 여겨졌다. 이 우주에서 부처님이 최고이고 부처님 말씀이 전부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혼탁한 세상을 정리해주신 부처님보다 위대한 분이 계시다니, 나는 그만 부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내 고단한 삶의 의지였던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잃고 나니 무척 괴로웠다. 기복이었을 망정 부처님은 언제나 내 삶의 든든한 의지처였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이었는데 마음의 지주를 잃은 내 마음은 황량하기만 했다.

그러나 위대하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대순진리교의 미륵부처님이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는 이런 저런 상실감 때문에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겹쳐 정신병원 입원까지 했다. 지금 생각하면 부처님을 너무 기복적으로 믿은 내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 나는 부처님 말씀만으로도 행복했던 지난날을 참으로 그리워했다. 그리고 대순진리교에 한때나마 혹한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나는 지금 다시 연화사를 다니며 내 지난날을 참회한다. 다시 부처님 품으로 돌아와 기복이 아닌 진정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며 내 자신을 다스리고 있다.

권은주(경남 진주시 옥봉동)

작은키 포기 하지마세요

許可番號 : 京畿 利川 衛 第13號

〈성·장·발·육!〉
성장기에 필요한 필수영양소의 적당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키가 쑥쑥! 1m80 다리 시대!

키가 유전이라고요?

| 영양31% | 유전23% |
|---|---|
| 운동20% | 환경16% 기타10% |

서울 대학교천연물 과학연구소는 동·식물 자원으로부터 천연약물, 정료 등 유용한 물질을 개발하기 위하여 1990년 경성제국대학부설 生藥연구소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연구소입니다 키돌이는 바로 이렇게 축적된 노하우에서 탄생한 결정체입니다

키돌이 성장원
KEYDORI SUNGJANGWON

대리점 모집
(02)563-1533

연구개발 서울대학교 천연물 과학연구소

엄마가 낳은 작은키 키돌이가 키웁니다. 제조원 (株) 開豊洋行 판매원 키돌이 성장원

* 본보 6월 14일자 게재된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가 아래 전화번호의 오기이옵기에 정정합니다

제품구입 : 소비자상담(무료전화) 080-011-8677



신간!

휴대폰만큼 작게!
그러나 깨달음의 울림은 크게 담았습니다.

작지만 그 안의 깨침은 위대합니다.

민족사 작은경전시리즈

① 법구경 석지현 스님 역 / 값 3,300원 /
② 아함경 돈연 스님 역 / 값 3,800원 /
③ 화엄경 김지견 박사 역 / 값 3,800원 /
⑤ 유마경 박용길 역 / 값 3,500원 /

작은경전 시리즈 ④ 묘법연화경 ⑥ 능엄경 ⑦ 부모은중경 · 지장경 ⑧ 금강경 ⑨ 백유경 ⑩ 대반열반경 ⑪ 숫타니파타 ⑫ 본생경 ⑬ 미륵경전 ⑭ 과거현재인과경 ⑮ 밀린다왕문경도 계속 간행됩니다.

***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부처님 말씀을 전하세요. ****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낯선 포교당에서 알아나는 울고웃는 사람들의 이야기"

신간

원옥스님의 포교당일기

"나[redacted]다."

"저… 정말로 스님이 맞아요?"
"그래, 내가 스님이란다! 왜 스님을 처음 보니?"
"예, 저는 옛날 이야기 속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마냥 신기해하는 눈빛의 아이,
스님과 부처님을 모르다니……! 이런 기가 막혔다.

"세상엔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워서 아름이며, 나이, 생김새,
마음씨 슬픔과 기쁨……
그들의 이야기, 나의 잃은 이야기를 조금씩 적어 놓았지요."

신국판 280쪽 / 값 7,500원

원옥스님은 20년 전 출가하여 중앙승가대학과 동학사 강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강남 함양 안의 포교당에서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